

“올해 골목상권 살리기에 최선”

남구청장, 상인대표 20여 명과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 가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할 자리가 만들어지기를 오래전부터 희망했는데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져 정말 기쁘고 고맙습니다(박기홍 못골골목시장 상인회장).”

지난 12월 18일 부산창업카페 부경대 대연점 세미나실에서 남구청장과 남구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만남은 민선7기 소통과 열린 행정을 위해 기획된 ‘구청장과 차 한잔의 데이트’ 행사로 지난 6월 청년 (예비)창업자들, 9월 장애인과 가족들에 이어 ‘세 번째 데이트’였다.

행사에 참석한 상인 대표들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남구지역 소상공인업소에서 유망이 가능한 지역화폐의 발행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남구청장은 지역화폐로 지역경제가 되살아난 군산시의 사례를 들며 “지역화폐의 가장 큰 혜택은 경기에 취약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누린다”며 “2020년에는 남구의회의



‘구청장과 차 한잔의 데이트’에서 남구의 소상공인·전통시장 대표 20여명이 참석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격의 없는 대화를 진행했다.

결을 거쳐 종이와 카드, 모바일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화폐를 반드시 발행해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고 강조했다.

하태정 한국미용사회 남구지회장은 “유엔평화로 일원에 주차단속이 심해

상인들이 영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사전안내 등 단속 완화를 요구했다. 남구청장은 “주차단속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은 단속 완화를 요구하고 다른 한쪽은 단속 강화를 요구하기도 한다”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

로 균형감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무가선 저상트램 오륙도선과 전통시장 지붕개선사업 지원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쏟아졌다. 남구는 이날 간담회에서 오고 간 내용들을 정리해 향후 구정 정책 수립에 참고할 방침이다.

낮에는 카페·밤에는 유럽식 와인바 사회적기업 비콥의 ‘착한 이중생활’



사회적기업 ‘비콥’의 바리스타들이 가게 앞에서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장애인·실버 바리스타 고용 카페 적자 와인바 운영 보전

황령산 자락 대연3동 대동골에 ‘착한 가게’ 하나가 문을 열었다. 낮에는 커피를 파는 카페, 밤에는 와인을 곁들인 유럽형 레스토랑으로 업종을 바꾼 ‘비콥(Bicop)’이 그 곳이다.

비콥이 흥미로운 것은 낮밤에 따라 달라지는 업종 때문만은 아니다. 바로 부산커피협동조합에서 만든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이다. 비콥에서는 장애인과 나이 지긋한 고령층 바리스타들이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응대한다. 작업 현장에서 소외·차별받기 쉬운 사회적 약자들에게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곳이다. 장애인들이 근무한다고 해서 커피 맛을 의심할 편견은 가질 필요가 없다. 이곳 직원들은 인근 부산커피협동조합에서 비장애

인들과 동등하게 정식 바리스타교육을 이수한 자격증 소지자들로 쓰거나 신맛이 강하지 않는 대종이 선호하는 부드러운 커피를 만든다. 좀 더 세밀한 공정은 비장애인 매니저가 도와준다.

비콥은 오후 5시부터 유러피안 레스토랑으로 얼굴을 바꾼다. 이때부터는 전문 셰프들이 출근해 와인과 최고급요리로 고객들을 감동시킨다. 와인과 요리 메뉴 외에도 가게 설계를 사방은 물론이고 천장까지 유리로 만들어 ‘부산의 작은 유럽’이란 콘셉트를 추구하고 있다. 낮 시간 카페에서 생긴 적자를 레스토랑 운영으로 메우는 셈이다.

이성록 대표는 “비콥이란 브랜드는 ‘최고의 협동조합(Best cooperative)’이 되겠다는 뜻으로 만들었다”며 “비콥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과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맛·가격·위생·서비스 다 잡은 착한 식당

용호동 ‘수구리보리밥’ 2109 부산 우수착한가격업소 선정

“매일 아침을 드시러 오는 20년 단골들도 꽤 있어요. 가족 같은 동네 손님들한테 어떻게 비싸게 받겠어요.”

용호동에서 30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 수구리보리밥이 2019년 부산시 우수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됐다.

부산시가 최근 628개 착한가격업소 가운데 위생 청결, 맛·서비스 평가, 지역사회 봉사 참여 등 항목별 종합 심사를 거쳐 ‘베스트5’를 엄선했다. 낯은 점포이지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깔끔하고 정돈된 첫 인상을 준다. 메뉴도 간결하고 가격도 착하다. 보리밥 6000원, 수그리 볶음 6000원, 가게 주인 장순자 씨는 “단가 때문에 2년 전 부득이 1,000원을 올렸다”며 겸연쩍어 했다. 하지만 팔려 나온 반찬만 10가지, 상다

리가 휘어질 지경이다. 수구리는 ‘수구레’의 사투리로 소의 가족에서 떼어낸 고기로 씹는 맛이 좋았다. 장 씨는 “고기가 귀하던 옛날 어머니가 가끔 해주던 음식인데 근처에 수구리를 파는 식당이 없어 만들기 시작했다”고 했다.

수구리보리밥은 맛, 가격, 청결 외에도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한달에 한번 독거어르신 300명을 초청해 점심으로 국수를 대접하다 몇해 전부터는 독거어르신 반찬나누기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아침 손님이 많아 새벽 2~3시 가개로 나와 밑반찬을 준비하고, 오전 7시~오후3시까지만 영업을 한다. 10년 전부터 어머니를 도와 가게를 운영하는 아들 박준혁씨는 “나온 반찬은 재사용하지 않는 듯 손님에게 언제나 최선을 다해왔다 자부한다”고 말했다.



용호동 수구리보리밥의 가게주인 장순자 씨와 아들 박준혁 씨.

착한가격업소 우수 사례 남구 2년 연속 최우수

‘2019년 착한가격업소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남구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이번 대회에서 사전 서면심사를 통과한 11개 기초자치단체가 시행중인 착한가격업소 정책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우수사례 전파, 지자체간 정보교류 등 착한가격업소 제도 발전을 위한 장을 마련했다.

부산일자리정보망

남구, 우수기관 선정

남구가 적극적인 구직자 취업정보제공으로 2019년 하반기 부산일자리정보망 활동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남구는 공공부문일자리정보 부문에 우수활동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부경대학교는 일자리지원프로그램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607-4295

우리지역 일자리 알리판

〈2019. 12. 30.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아이하나	용호동	매트시공 보조원	2명	19. 12. 30. 채용시	연봉 24,000,000원	051-622-1056
본드림한의원	대연동	간호조무사	1명	19. 12. 30. 채용시	연봉 22,000,000원 ~ 25,000,000원	051-741-7588
이정형외과	용호동	물리치료사	1명	19. 12. 30. 채용시	월급 2,500,000원	051-622-2727
부산성소병원	대연동	병원급식조리사	1명	19. 12. 30. 채용시	월급 2,000,000원	070-7008-4594
도무스설비연구소	대연동	건축설비 기술자	1명	19. 12. 30. 채용시	연봉 21,000,000원	051-633-4600
새마을운동남구지회	대연동	총무사무원	1명	19. 12. 30. 채용시	월급 1,800,000원	051-633-7642
주식회사디에스에이	용당동	플라스틱 사출 조직원	1명	19. 12. 30. 채용시	시급 8,590원	051-266-8811
월기천성모재활센터 (주간보호센터)	문현동	간호조무사	1명	19. 12. 30. 채용시	월급 1,800,000원	051-639-1008
김성미소아청소년의원	용호동	간호사	1명	19. 12. 30. 채용시	연봉 36,000,000원	051-714-2046
(주)케이 리퍼콘	용당동	컨테이너 수리기사	1명	19. 12. 30. 채용시	월급 2,000,000원	070-7760-7617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worknet)와 연계
※ 남구 취업정보센터 ☎607-4347~8 Fax, ☎607-4349



그랜드자연요양병원



이 사진은 실제 병원 전경입니다.



◆ 병원장 이재일(내과 전문의 / 중앙대학교 의과대학학부)
◆ 치매, 뇌졸중, 파킨슨, 노인성질환, 물리치료, 의학 한의학 협진
부산 남구 대연동 황령대로 355-14 | 대남교차로에서 황령터널 방향 우측



상담문의 051-612-0075
www.grandnature.kr

유료광고